

말더듬 성인과 아동에 대한 일반인 및 언어치료전문가 집단의 인식 연구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언어병리학 협동과정,²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³
신 언어임상연구소,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언어병리학 협동과정⁵

김유정^{1,2} · 장선아^{2,3} · 신문자^{4,5}

= Abstract =

Perception of Adults' and Children's Stuttering in Korean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and Laypeople

Yu-Jung Kim, MA,^{1,2} Son-A Chang, MA^{2,3} and Moonja Shin, PhD^{4,5}

¹Seoul National Hospital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ic, Seoul; and ²Graduate Program in Speech-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and ³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eoul; and

⁴Shin's Speech-Language Clinic, Seoul; and ⁵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isteners' perception toward stuttering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tuttering.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and laypeople toward children and adults with stuttering. A Total of 102 subjects were surveyed.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perception was more stereotypical than that of laypeople. laypeople perceived adults and childre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but, clinicians viewed adults more stereotypically.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were not influenced by experiences, but experienced laypeople perceived children more negatively although people who have stuttering family members showed a less stereotypically. item analysis revealed that both groups showed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adults and children with stuttering.

KEY WORDS : Stuttering ·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perception · Laypeople perception.

서 론

말더듬은 편안한 말의 흐름이 잘 안 되는 현상으로, 음절이나 소리의 반복 그리고 소리의 연장이 일차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더듬은 초기에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복잡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말을 더듬는 사람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더듬은 말을 유창하게 하려는 자신의 내부적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상호 작용하

여 언어행동이나 사고 및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을 가진 장애라 할 수 있다.^{1,2)}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말더듬에 대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진단 및 치료에 걸쳐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³⁾

따라서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⁴⁾ 이러한 연구는 또한 언어치료전문가들이 말더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언어치료를 할 때 치료의 범위 및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말더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외국의 경우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사람들의 태도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성인과 아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논문접수일 : 2006년 8월 29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2일
책임저자 : 신문자,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 두산 위브 B-101
신 언어임상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전화 : (02) 3474-6777 · 전송 : (02) 3474-0790
E-mail : moonjashin@dreamwiz.com

1) 일반인 집단 및 언어치료전문가 집단은 말더듬 성인 및 아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2) 일반인 집단과 언어치료전문가 집단은 말더듬 성인 및 아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 말더듬에 대한 경험 유무(일반인의 경우 만나본 경험, 언어치료전문가의 경우 진단 또는 치료 경험)에 따라 말더듬 성인 및 아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자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일반성인 72명과 언어치료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말더듬는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1회 이상 있을 때, 언어치료 전문가의 경우 진단 또는 치료 경험이 2회 이상 있을 때 말더듬 사람에 대한 경험자로 구분하였다(Table 1).

2. 방법

Woods와 Williams(1976)⁵⁾가 개발한 말더듬는 사람을 묘사한 25가지 형용사 문항 검사를 심현섭(2000)³⁾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수정 사용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항목 2 'nervous-calm'을 '신경질적이다-온화하다'로 번안한 것은 '예민하다-평온하다'로, 항목 11 'quiet-loud'의 '차분하다-부산스럽다'는 '조용하다-시끄럽다'로, 항목 23 'emotional-bland'의 '감정이 매마르다-감정이 풍부하다'는 '감정기복이 크다-무덤덤하다'로 바꾸었다. 또한 기존의 7점 척도 대신 각 문항은 말더듬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형용사가 짝을 이룬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5점 척도에서 말더듬는 사람들에게 빈번히 적용되는 형용사를 왼쪽에 두고 반대되는 형용사를 오른쪽에 두었으며 왼쪽 척도에서부터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로 등간 척도를 평정하게 했고, 각각 0, 1, 2, 3, 4점을 배당하여 집단 간 평균을 그래프화 하였다(Fig. 1).

설문 조사지를 나눠주고 인구학적 정보를 기록한 후, 설문 방법에 대한 지시문을 읽고 나서 전형적인 말더듬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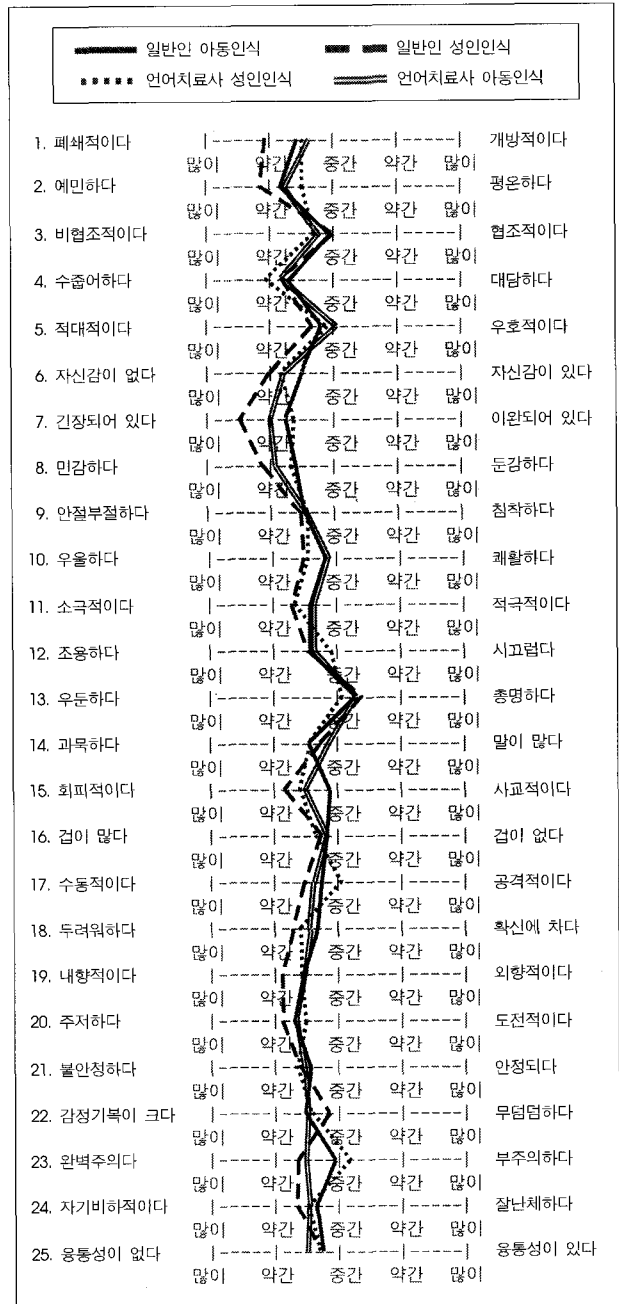


Fig. 1. Mean ratings toward adults and children with stuttering for each five-point scale by Korean speech Language Pathologist and laypeople.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Gender		Age					Education			Family who stutter			
	Male	Female	20's	30's	40's	50's	60's	NR*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education	NR*	Yes	No	NR*
Lay people	25 (35%)	47 (65%)	23 (33%)	29 (40%)	4 (6%)	3 (4%)	11 (15%)	1 (1%)	9 (13%)	58 (80%)	5 (7%)	7 (10%)	63 (87%)	2 (3%)
SLP	0	30 (100%)	7 (23%)	19 (63%)	4 (13%)	0	0	0	0	30 (100%)	0	1 (3%)	26 (87%)	3 (10%)

*NR : No response

및 아동을 상상해서 각 문항에 답을 하도록 했다.

3. 통계분석

그리고 SAS 8.2 통계 프로그램으로 t-test, One 또는 Two-way AN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다중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을 분석했으며, 문항별로 χ^2 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신뢰도

같은 설문을 사용하여 조사한 심현섭(2000)³⁾의 연구결과에서 본 설문은 .83의 비교적 높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결 과

성별, 연령대, 학력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말더듬는 가족이 있는 경우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해 덜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했다. 유의수준 .05에서 일반인들은 말더듬는 성인과 아동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언어치료전문가들은 말더듬 성인을 말더듬 아동보다 더 고정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인과 언어치료전문가 집단 간에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었다. 언어치료전문가가 말더듬는 사람들을 더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했다.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 유무가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1) 말더듬는 성인과 아동을 모두 경험한 그룹, 2) 말더듬는 성인만 경험한 그룹, 3) 말더듬는 아동만을 경험한 그룹, 그리고 4) 말더듬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언어치료전문가 그룹은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경험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말더듬 경험 유무에 따라 말더듬 성인과 말더듬 아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 4가지 그룹 중 어느 군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분석을 시행한 결과, 말더듬는 아동만을 경험한 그룹과 말더듬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말더듬 아동에 대한 경험만 있는 집단은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해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보다 더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문항별로 집단간 χ^2 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0에서 4점으로 평정한 각각의 점수별 분포로 언어치료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말더듬 아동과 성인에 대한 일

Table 2. Item analysis between speech language pathologist and laypeople toward adults and children with stuttering

말더듬 성인	자신감 있음-자신감 없음, 회피-사교, 자기비하-자랑적
말더듬 아동	우울-쾌활, 조용하다-시끄럽다, 우둔-총명, 감정기복-무덤덤, 완벽주의-부주의

p<.05

반인들과 언어치료전문가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다(Table 2).

고 찰

말더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온 광범위한 문헌들은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말더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²⁾⁶⁾에도 불구하고 언어 치료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연구들에서는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⁷⁾ 언어치료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인식 차이 또한 연구되어 왔는데, 언어치료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⁷⁾는 연구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³⁾⁸⁾⁹⁾ 본 연구에서도 후자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어서 언어치료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고정관념적으로 말더듬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 중 58%(29명)가 말을 더듬는 성인을 만나본 적이 있었으며 40%(20명)가 말을 더듬는 아동을 만나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81.6%¹⁰⁾나 85.4%¹¹⁾ 등의 선행 연구 결과들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언어치료전문가들의 경우, 56%(14명)가 말더듬 성인을 진단 또는 치료한 경험이 있었으며 64%(16명)가 말더듬 아동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언어치료전문가들이 아동들에 대한 치료 경험이 더 많은 것은 성인들보다 아동들이 치료실을 더 많이 찾는 데에 기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대, 학력에 따른 말더듬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¹²⁾¹³⁾ 언어치료전문가 그룹은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경험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인들은 말더듬는 아동만을 경험한 그룹이 말더듬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보다 말더듬는 사람에 대해 더 고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말더듬 가족의 유무는 말더듬에 대한 경험과 상통하는 변수이므로 집단 간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말을 더듬는 사람과 특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성공

적인 수행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을 말하는 것으로 유·청 소년¹⁴⁾이나 성인¹⁵⁾ 모두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말더듬과 우울이 자기-평가의 경우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¹⁶⁾ 그런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연구들도 있다.¹⁷⁾ 이렇듯 연구의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말더듬는 사람들의 특질에 대해서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말더듬는 사람들의 고정적인 특질로 단정 짓기보다는 말더듬는 개인이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할 때 이에 대한 고려와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말더듬 치료에서 불안을 다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연구¹⁸⁾가 있으며 그 개인에 다른 차이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일반적인 72명과 언어치료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말더듬는 성인과 아동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치료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 말더듬는 사람들을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일반인들은 말더듬는 성인과 아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언어치료 전문가들은 말더듬 성인을 말더듬 아동보다 더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언어치료 전문가들은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경험에 따른 인식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말더듬는 아동만을 경험한 그룹이 말더듬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보다 말더듬는 사람에 대해 더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말더듬는 사람들이 갖는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이들과의 경험에서 가상적으로 비롯된 것인지는 더 나아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그룹에서의 말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

루어진다면 보다 말더듬에 핵심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말더듬는 사람들의 특성조사가 함께 진행되어 치료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 말더듬 · 언어임상가의 인식 · 일반인의 인식.

REFERENCES

- 1) Shin M. *Treatment effects in Fluency Disorder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1996.*
- 2) Van Riper C. *The nature of stuttering. NJ: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2.*
- 3) Sim HS. *A study on stereotypes of the Korean male adults who stutter. Korean J Commun Disord 2000;5:192-208.*
- 4) Sung JA. *The factors influencing listeners' perceptions of adult stutter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 5) Woods CL, Williams DE. *Traits attributed to stuttering and normally fluent males. J Speech Hear Res 1976;19:267-78.*
- 6) Bloodstein O. *A Handbook on Stuttering, 4th ed. National Easter Seal Soc. Chicago; 1987.*
- 7) Hulit LM, Wirtz L. *The association of attitudes toward stuttering with selected variables. J Fluency Disord 1994;19:247-67.*
- 8) Woods CL, Williams DE. *Speech clinicians' conceptions of boys and mensutter. J Speech Hear Disord 1971;36:225-34.*
- 9) Ruth E, Levin I.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stutter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 Fluency Disord 2004;29:135-48.*
- 10) Van Borsel J. *Public awareness of stuttering. Folia Phoniatica et Logopaedica 1999;51:124-32.*
- 11) Ming JX, Jing Z, Wen ZY, Van Borsel J. *Public awareness of stuttering in Shanghai, China. Logoped Phoniatr Vocol 2001;26:145-50.*
- 12) Lass NJ, Ruscello DM, Schmitt JF, Pannbacker MD, Orlando MB, Dean KA, et al. *Teachers' perceptions of stutterers. Lang Speech Hear Serv Sch 1992;23:78-81.*
- 13) Robinson TL, Crowe TA. *Communication disorders in multicultural populations, 3rd ed. In D.E. Battle (ed), Fluency disorder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2002.*
- 14) Manning WH. *The SEA-Scale: self-efficacy scaling for adolescents who stutter, presentation to ASHA convention, New Orleans; 1994.*
- 15) Ornstein A, Manning W. *Self-Efficacy scaling by adult stutterers. J Commun Disord 1985;18:313-20.*
- 16) Ardila A, Bateman JR, Nino CR, Pulido E, Rivera DB, Vanegas CJ. *An epidemiologic study of stuttering. J Commun Disord 1994;27:37-48.*
- 17) Miller S, Watson BC.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xiety, and depression in stutterers and nonstutterers. J Speech Hear Res 1992;35:789-98.*
- 18) Kraaimaat FW, Vanryckeghem M, Van Dam-Baggen R. *Stuttering and social anxiety. J Fluency Disord 2002;27:319-31.*